

점으로부터 자금회수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여유를 주기 위하여 제품출하 후 약 20-30일 사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정제공정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 또한 오랫동안 불만요인이 되어 왔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세금이 제품 소비시에 부과되나, 이탈리아에서는 제품의 제조에 부과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제과정에 수많은 체크를 하게 되어, 이는 제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제시설의 기술적인 대체마저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에 대해 Unione Petrolifera는 이와 같은 관료적인 제도가 개선되어, 原油의 정제과정 투입시와 제품 완성 단계에서 간단한 체크만을 하게 된다면 정유공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마케팅 부문에서도 휘발유, 경유, 그리고 정도는 덜 하지만 輕質연료유의 출고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Prezzi Sorvegliati 법규를 통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국내가격이 EEC 5개국의 평균 가격과 리터당 10리라(美화 약 3센트/미국 갤런당) 차이가 날때 한해서 정유사 출고가격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기준은 전에는 휘발유는 5리라, 경유는 7리라로 적용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현재의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경질연료유의 가격은 경유가격에 30%, 그리고 통제하에 있지 않은 중질연료유 가격에 70% 연계되어 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Prezzi Sorvegliati 시스템으로 인해 정유회사

들은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있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지난 86년처럼 제품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익이 발생하나, 다른 곳에서 제품가격이 상승할 때는 그만큼 상대적인 수익감소를 초래한다. 그 단적인 예로 최대의 민간사업자인 엡소 이탈리아나는 85년에 550억 리라(4천4백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후, 86년에는 790억 리라(6천4백만 달러)의 이익을 실현하였으나, 87년에는 原油 가격의 상승에 의하여 1조리라(8억 6백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Unione Petrolifera는 밝히고 있다.

◆ 가격인상으로 정유업계의 부담감소

이처럼 행정적인 통제로 인해 정유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정제 코스트의 증가요인이 되어 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정유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해 휘발유의 최고 허용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들은 87년 12월 4일부터 EEC 평균가격보다 리터당 16.97리라(美화 5.2센트/미국 갤런당)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그러나 추후의 가격변동은 여전히 종전의 가격조정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완전 자율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간조치로서 시행된 것이나, 언제 완전자율화가 실현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유회사들은 가격인상 허용조치에 의해 88년에는 상당한 수익개선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表-1〉 이탈리아의 石油수급추이

(단위 : 백만톤)

	1973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87/86 증감율
生産	1,048	1,682	1,800	1,460	1,727	2,208	2,240	2,352	2,529	4.0	+58
수입(원유)	128,536	110,448	88,608	85,523	80,070	69,734	66,358	63,434	71,882	66.5	-7
수입(제품)	4,881	11,940	19,202	20,538	23,056	26,085	27,066	30,287	27,579	34.4	+25
수출(제품)	29,845	22,726	11,843	14,821	14,507	12,820	10,539	12,226	17,302	14.8	-15
석유제품소비	87,496	89,483	88,318	85,887	80,750	79,914	76,718	75,050	76,782	82.5	+7
휘발유	11,150	11,960	12,090	12,000	11,950	11,584	11,542	11,693	11,791	12.0	+2
경유	4,940	9,680	9,780	10,642	11,406	11,219	12,190	13,290	14,941	15.7	+5
난방유	11,450	12,370	11,750	10,650	10,190	10,775	10,099	10,107	9,047	9.1	-
연료유 발전부문	15,450	18,270	19,420	19,840	17,810	17,150	14,902	14,226	15,334	20.1	+31
기타	24,550	19,240	17,430	15,410	13,070	11,390	10,553	9,097	8,981	7.6	-15

그러나 정부는 정유회사들이 휘발유를 EEC평균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Prezzi Sorvegliati 통제가 지속되는 것은 아무런 실효가 없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 통제조치들은 70년대 OPEC에 의한 原油가격 인상으로부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석유제품 가격은 EEC평균가격보다 더 높으며, 휘발유의 경우에는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의 석유제품 수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제품수입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1〉은 이탈리아 정유회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73년에 순 수출량은 25백만톤이었으나, 79년까지 그 2분의1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듬해인 80년에는 순수입량이 수출량을 7백만톤 이상 초과하였다. 이후 제품수입은 OPEC의 넷트백 시스템 도입으로 정유공장의 가동율이 크게 높아진 8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가 지속되어 87년에는 34백만여톤에 이르게 되었다. 제품수출이 비록 86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에 있을지라도 작년에는 20백만톤의 수입초과를 기록하여 이탈리아의 내수소비에 있어서 4리터 중 1리터는 해외에서 정제된 제품들이다.

가격통제로 인한 저수익성과 관련하여 정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 또한 상황변화에 대한 정유산업의 신속한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 디스틸레이션 시설이 상당히 정지되었으나, 여전히 시설이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 Unione Petrolifera의 자료에 의하면 87년 이탈리아의 1차 디스틸레이션 능력은 연산 128백만톤으로서, 原油 및 재공제품 약 82백만톤을 정제하여 약 64%의 가동율을 기록하였다. 만일 재공품을 제외할 경우 순수 가동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시설폐쇄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메이저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리비아 등 신규 참여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고, 또한 민간 시설의 일부는 합작으로 운영되고 있어 잉여시설의 정리를 위한 조정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산유국의 입장에서 다른 곳에서는 시설을 폐쇄해야 할 형편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취득을 할 수가 없어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중동과 베네수엘

라는 Erg사의 연산 58백만톤의 제노바 정유공장의 지분을 취득하여 올해 3월부터 수익이 기대된다. 지중해의 섬들에 위치에 있는 수출용 정유공장들은 이탈리아의 정제능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칠리섬의 시라쿠사에는 연산 11백만 규모의 Isab정유공장과, Montedison의 자회사 Selm의 연산 12백만톤 규모의 정유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샤프디니아섬의 칼라리에는 연산 15백만톤 규모의 Saras정유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영 ENI는 총 정제능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유제품 시장에서 3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약 10%의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는 옛소는 시칠리섬의 시라쿠사에 연산 9백만톤 규모의 정유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Montedison의 자회사 Selm과 Shell이 새로 합작 투자한 회사는 모두 2,566개소의 충전소를 보유, 옛소와 비슷한 1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 향후 에너지수급 전망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원별 수요구조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석유산업의 자율화 욕구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2〉에 의하면 87년에는 견실한 경제회복에 힘입어 에너지 소비가 약 4% 증가하여 피크메인 지난 79년의 에너지소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이후 이탈리아는 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조치하여 발전용 석유 및 가스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현재 石油은 총에너지 소비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가스는 2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이탈리아의 에너지 공급판도는 지난 87년 11월 선거이후 새로운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기피의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정부의 에너지공급구조의 재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 선거에 구속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계획에서도 원자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존 원자력 발전시설의 재가동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2,000메가와트 규모의 Montalto di Castro 원자력발전소의 부분적인 완공가능성

〈表-2〉 이탈리아의 1차 에너지 소비추이

(단위: 백만톤)

	1973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	87/86, 1~9 증감(%)
石油	105.3	102.1	98.8	94.6	90.5	89.7	85.1	85.6	87.0	66.2	+7.5
가스	14.3	22.9	22.8	22.1	22.0	22.6	26.6	27.3	29.0	22.3	+10.9
석탄	10.2	11.3	12.5	13.5	14.1	13.2	15.0	16.2	15.2	11.5	+1.8
전력	10.0	12.7	12.9	13.4	13.4	14.0	16.7	17.0	17.0	11.4	-19.1
Renewables	-	-	-	-	-	-	0.2	0.2	0.3	na	na
計	139.8	149.0	147.0	143.6	140.0	139.5	143.6	146.3	148.5	111.4	+4.0

이 강력히 기대되고 있다.

Unione Petrolifera가 최근 완성한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Montalto di Castro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현재 총 발전능력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오는 2000년도 총 에너지소비에 대한 1차 전력에너지의 비중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표-3〉에 나타나 있는 전망치에 의하면 1차 전력 및 석탄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며, 가스수요는 약간의 증가를, 그리고 石油수요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의해 오는 2000년의 에너지원별 소비 구성은 石油가 87년의 59%에서 49%로 비중이 감소하고, 가스는 21% 불변이며, 석탄은 10%에서 16%로 증가를 보이며, 원자력은 13%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소요에너지의 공급은 비록 이탈리아의 국내가스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表-3〉 이탈리아의 1차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 백만TOE)

	1987	1988	1989	1990	1995	2000
石油	90.9	89.9	90.3	89.8	87.8	90.4
가스	32.0	33.0	33.8	34.6	36.7	38.0
석탄	15.6	16.3	16.6	18.3	24.7	29.9
전력	14.1	15.5	16.7	17.4	21.4	22.9
Renewables	0.3	0.3	0.3	0.4	1.0	1.5
計	152.9	155.0	157.7	160.5	171.6	182.7

〈표-4〉에 의하면 90년도 이후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공급증대가 예상되며, 지중해 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알제리아의 가스 공급도 증가할 것이다. 가스소비는 국내 파이프라인 보급망이 확충됨에 따라 민수용 소비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2000년까지 약 9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가스가 발전용으로 사용되어 질 것이다. □ (Petroleum Economist. 88. 3)

〈表-4〉 이탈리아의 가스수급 전망

(단위: 10억 입방미터)

	1987p	1988	1989	1990	1995	2000
소비						
산업	11.4	11.7	12.1	12.3	12.8	13.1
Chemical feedstock	2.5	2.5	2.5	2.5	2.5	2.5
Electricity generation	7.0	7.0	7.0	7.0	7.5	7.5
Electricity generation by industry	0.9	0.9	0.9	1.0	1.2	1.5
국내	16.5	17.4	18.0	18.5	19.8	20.7
자동차연료	0.3	0.3	0.3	0.4	0.4	0.4
SNAM's own Consumption	0.2	0.2	0.2	0.3	0.3	0.3
計	38.8	40.0	41.0	42.0	44.5	46.0
공급						
국내생산	16.4	16.8	17.0	17.0	17.0	17.0
네덜란드	4.7	4.5	4.5	4.0	4.0	4.0
소련	8.4	8.6	9.0	10.9	11.8	13.3
리비아	-	-	-	-	-	-
알제리	10.0	10.4	11.0	11.5	12.0	12.0
計	39.5	40.3	41.5	43.4	44.8	46.3